

# 곧 추석인데... 중소기업 자금난 호소

### 중기제주본부 52개 업체 대상 자금 수요조사 “자금난 원인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판매부진” 10곳 중 7곳 “상황 어렵지만 추석상여금 지급”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지난해 추석 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52곳을 대상으로 추석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5.4%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추석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73.4%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81.3%가 ‘그렇다’고 응답해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여파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유(복수 응답)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6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 부진(55.9%), 인건비 상승(32.4%), 판매대금 회수 지연(20.6%), 이자비용 증가(11.8%), 금융기관 이용 곤란(5.9%)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보통’이라는 응답은 54.9%, ‘곤란’하다는 응답은 33.3%, ‘원활’이라는 응답은 11.8%, ‘매우 곤란’이라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거래 시 예로사항(복수 응답)으로는 ‘고금리(6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올해 추석에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은 평균 1억4800만원이었고 이 중 부족한 자금은 평균 840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 비율이 56.9%이었다. 올해는 지난해 추석(43.3%)에 비해 자금 부족률이 다소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족한 추석 자금 확보 계획(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조기 회수(61.5%), 결제대금 지급 연

기(38.5%), 금융기관 차입(26.9%)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책없음’ 응답도 34.6%에 달했다. 추석 상여금(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9.2%로 지난해 추석에 비해 9.2%p 증가했다.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1.2%,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6%로 조사됐다. 중기 제주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 사정은 지난해 추석 대비 다소 나아졌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자금조달 예외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또 기승

### 피해자 확인 전화 걸면 중간 가로채 “검사 맞다” 경찰 “최근 검찰 등 국가기관 사칭한 범죄 늘어”

감소 추세에 있던 검찰·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다시 기승을 보이고 있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검찰을 사칭한 인물이 “대표 통장 관련 수사 중인데, 은행원들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돈을 모두 뽑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전화를 제주에 살고 있는 A씨에게 걸려왔다. A씨는 해당 검찰청에 직접 걸었지만 “검사가 전화한 것이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A씨는 총 3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인출했고, 인출된 돈은 자신을 검찰청 직원이라고 소개한 B(40대)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A씨 휴대전화에는 전화를 중간에 가로채는 ‘가로채기’ 악성앱이 깔려 있어 검찰청에 전화를 걸더라도 연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제주경찰은 추석 끝에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B씨를 검거해 구속했지만, 점조적으로 이뤄진 보이스피싱 실체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한 상황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까지의 대표 사기형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8월부터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며 “사칭형 범죄는 대부분의 일반인이 수사기관을 접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강압적인 목소리로 피해자를 다그쳐 당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물론 금융기관도 수사를 방해해 송금 또는 자신을 검찰청 직원이라고 소개한 B(40대)씨에게 전달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 “군대를 지옥으로 만들어”

### 군복무 시절 후임 폭행 법원 징역형 집유 선고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들에게 무차별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12월 12일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에서 후임병 3명을 대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손·발은 물론 둔기를 이용해 후임병을 폭행했고, 그 횟수만 200회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후임병 중에는 정강이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군대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이 사건을 본)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고 싶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송은범기자



추석 앞둔 우편집중국 1일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에 추석을 앞두고 출고될 택배 물건들이 쌓여있다. 이상국기자

# 지인 살해 60대 검찰 징역 20년 구형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지인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참지 못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휘두른 것이다.

특히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제주 아라동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은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점 ▷범행 수법에 비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송은범기자

# 성산항 어선 방화범에 징역 7년 구형

### 어제 제주지법 첫 재판 지난 7월 4일 3척 전소 총 20억원대 재산 피해 선주 “모든 것을 잃었다”

20억원이 넘는 피해를 야기한 ‘제주 성산항 어선 화재’의 50대 피고인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현주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4일 새벽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연승어선(29t·39t·47t)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성산항에 도착했으며, 주유구를 열고 면장갑에 경유를 묻힌 뒤 정박돼 있던 피해 어선들에 점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선 3척이 불에 타났은 물론 출몰한 소방차 1대까지 소실되면서 26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 제주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 어선주 2명이 참석해 “얼굴도 모르는데, 왜 내 배에 불을 질렀냐”, “피해가 너무 커 모든 걸 잃은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도 A씨의 방화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은 물론 합의 가능성도 없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서도 “CCTV 영상에서 불을 지르는 인물은 내가 맞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선고공판을 진행기로 했다. 송은범기자

##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듦→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 국내육성

전량 좋은 신종품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레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함량 및 높이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절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 과수능률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키라향, 산화향(붉은색 감귤)

###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허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야마노스 미나리, 국내산 행사묘목 판매(신규) 010-220-2203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점! 사전예약 탕뭍1호, 선경, 주문생산 주문생산 실봉미, 미니로,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999번길1(수산리735)